

경제전망 요약

- 국내경제는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내수도 당초 경로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회복흐름을 재개하면서 2%대 초중반 수준의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원물가의 하향안정 흐름 지속, 지난해 유가·농산물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하반기중 2%대 초반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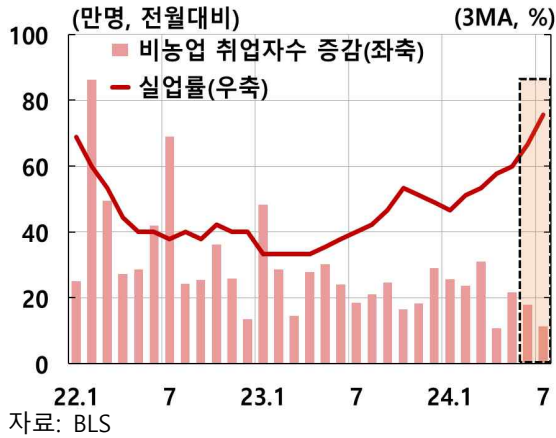
	2023	2024 ^{e1)}	2025 ^{e1)}
GDP 성장률 (%)	1.4	2.4 (-0.1)	2.1 (-)
소비자물가 상승률 (%)	3.6	2.5 (-0.1)	2.1 (-)
(근원물가)	3.4	2.2 (-)	2.0 (-)
경상수지 (억달러)	355	730 (+130)	620 (+10)
취업자수 증감 (만명)	33	20 (-6)	16 (-2)

주: 1) ()내는 24.5월 전망 대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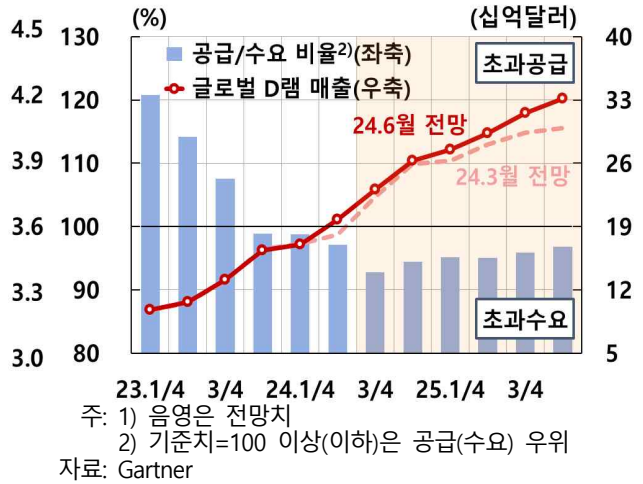
최근 주요 동인^{drivers} 변화

- 지난 전망 이후, 주요국의 긴축완화 움직임이 확산되고 글로벌 IT경기는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증대되었다. 내수는 회복흐름을 재개했지만 회복세가 더딘 것으로 평가된다.
 - 세계경제는 지난 전망 수준의 완만한^{moderate} 성장흐름을 지속하겠으나 국별 성장 흐름은 당초 전망에서 다소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①중국¹이 당초 예상을 소폭 웃도는 성장흐름을 나타낼 전망이다 반면 ②미국²은 실업률 상승 등으로 성장하방압력이 다소 커졌다<그림1>. ③글로벌 제조업 경기와 교역 회복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④IT 경기는 AI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국내기업의 공급능력도 보다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2>. ⑤국제유가는 원활한 원유생산, 주요국 수요둔화 가능성 등으로 지난 전망에 비해 하향 안정된 흐름이 예상되나, 중동분쟁 격화 등에 따라 단기적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다<그림3>.
 - 주요국 ⑥시장금리는 디스인플레이션 진전과 이에 따른 미 연준의 금리인하 시사, 미국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상당폭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미 달러화^{dxy}는 약세를 나타냈으며, 6~7월중 1,300원대 중후반에서 등락하던 ⑦원화가치^{달러대비}도 미 정책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됨에 따라 최근 1,300원대 초중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그림4>.
 - 대내적으로는, 내수는 조정 국면을 거친 후 회복흐름을 재개하고 있으나 소득 개선 지연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더딘 것으로 평가된다<그림5>. ⑧주택시장은 지역간 차별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은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그림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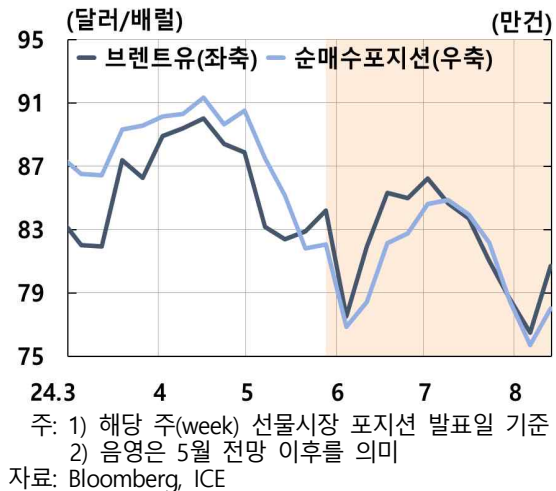
< 그림 1 > 미국 취업자수 증감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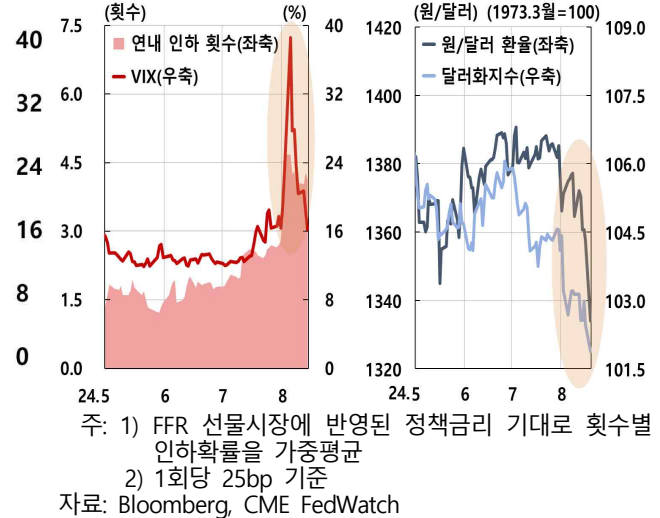
< 그림 2 > 글로벌 D램 매출 및 수급 전망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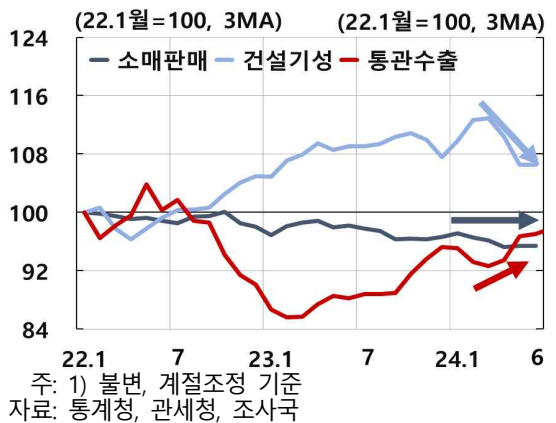
< 그림 3 > 국제유가¹⁾ 및 선물시장 순매수포지션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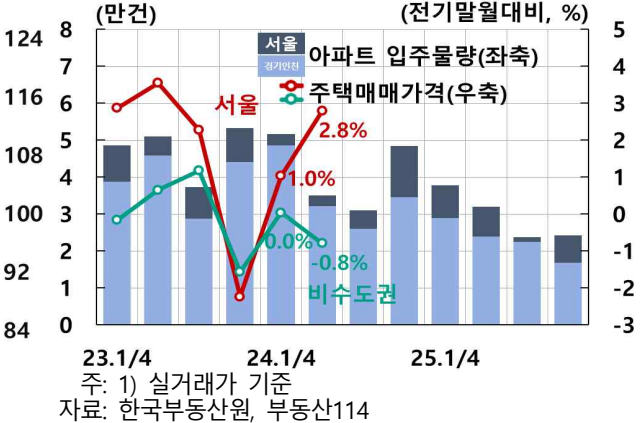
< 그림 4 > 시장의 美 정책금리 기대¹⁾²⁾ 및 환율



< 그림 5 > 소매판매¹⁾, 건설기성¹⁾, 통관수출



< 그림 6 >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및 주택매매가격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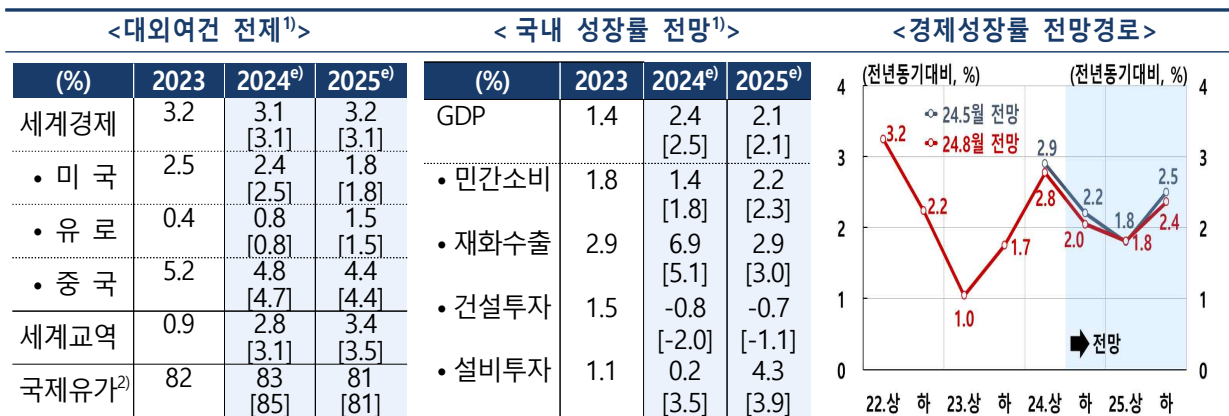


대외여건

- 세계경제는 디스인플레이션 진전과 주요국 통화정책의 기조 전환으로 3%대 초반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¹⁾.
 - 미국은 최근 고용둔화 등에 따른 하방압력이 증대되면서 당초 예상을 소폭 하회하는 성장세가 예상된다. 유로지역은 가계 실질구매력 향상 등에 힘입어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개선되겠으며, 중국은 IT를 중심으로 양호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부양 조치 등으로 내수부진이 점차 완화되면서 4%대 후반의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이다.
- 세계교역은 상품교역 중심의 개선세가 이어지겠으나 최근 선진국 교역의 부진한 흐름, 주요국 간 무역갈등 등을 감안할 때 회복속도는 지난 전망보다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제유가는 원활한 원유 생산, OPEC+의 감산축소 계획 등 공급여건이 양호한 가운데 글로벌 수요도 예상을 소폭 하회함에 따라 당분간 80달러 내외에서 등락하겠으나 중동 갈등의 전개 양상이 불안요인이다.

경제전망

- 올해 국내경제 성장률은 연초 전망²월 2.1%에 비해서는 높으나 5월 전망^{2.5%}에는 다소 못 미치는 2.4%로 예상되며, 내년 성장률은 지난⁵월 전망에 부합하는 2.1%로 전망된다.
 - 성장흐름을 살펴보면, 2/4분기중 성장률은 전분기 큰 폭 성장^{전기대비 1.3%}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크게 조정^{-0.2%}되었다. 3/4분기 이후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도 나아짐에 따라 전체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부문별로 보면 수출은 IT경기 호조, 방한 관광객 증대 등에 힘입어 지난 전망보다 높은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일시적 요인의 영향으로 상반기중 크게 오르내린 내수의 경우 기업 투자여력 증대, 디스인플레이션 진전 등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재개하겠지만 모멘텀 상승폭은 당초 예상에 다소 못 미칠 전망이다.



주: 1) []는 24.5월 전망치 2) 브렌트유 기준, 달러/배럴

자료: 조사국

1) IMF는 지난 4월 경제전망에서 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2%로 예측하면서 많은 지표들이 연착륙 (soft-landing)을 시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원물가가 2%대 초반에서 안정된 가운데 농산물가격 상승률도 상당폭 둔화되면서 5월 전망_{2.6%}을 소폭 하회하는 2.5%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당초 전망_{2.1%}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근원물가는 금년_{2.2%}과 내년_{2.0%} 모두 지난 전망에 부합할 전망이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중 일시 반등*하였으나 근원물가가 하향 안정된 가운데 8월부터 지난해 유가·농산물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공급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시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7월중 CPI 상승률은 근원물가 상승률이 전월 수준을 유지_{6월 2.2% → 7월 2.2%}하였으나 석유류가격이 국제유가 상승, 유류세 인하율 축소 등으로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소폭 반등_{2.4% → 2.6%}

○ 경상수지는 금년중 730억달러로 당초 전망_{600억달러}을 크게 상회, 25년에는 620억달러로 지난 전망_{610억달러}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상품수지*는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개선세를 지속하고 수입은 내수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더딘 회복세를 보이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비스수지*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 호조 등으로 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상품수지(월평균, 억달러) 23.3/4분기 57 → 4/4 68 → 24.1/4 63 → 2/4 84
서비스수지(") 23.3/4분기 -24 → 4/4 -20 → 24.1/4 -23 → 2/4 -15

○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24년 20만명, 25년 16만명으로 예상보다 둔화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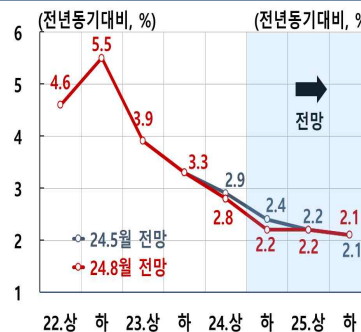
■ 금년중 제조업은 수출 개선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가겠지만, 서비스업이 도소매 등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취업자수 감소폭이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경상수지·고용 전망¹⁾>

	2023	2024 ^{e)}	2025 ^{e)}
소비자물가(%)	3.6	2.5 [2.6]	2.1 [2.1]
• 근원물가(%)	3.4	2.2 [2.2]	2.0 [2.0]
경상수지 (억달러)	355	730 [600]	620 [610]
취업자수 증감 (만명)	33	20 [26]	16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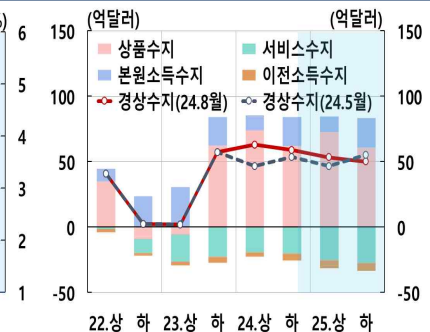
주: 1) []내는 24.5월 전망
자료: 조사국, 경제통계국, 통계청

<소비자물가 전망경로>



자료: 통계청, 조사국

<경상수지 전망경로>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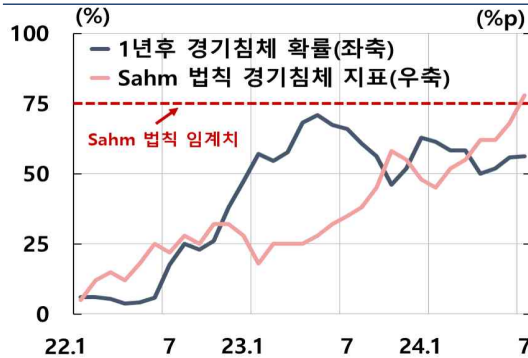
전망의 리스크

- 향후 전망경로 상에는 주요국 성장·물가흐름, IT경기 확장 속도, 글로벌 정치 상황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으며, 물가의 경우 기상여건, 공공요금 조정 시기 등도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
- 이처럼 전망경로 상의 불확실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미국경제 성장세 **시나리오 1**, 반도체 경기 **시나리오 2**와 관련한 대안적 시나리오 alternative scenarios를 분석하였다.

* 시나리오별 주요 전제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본문의 31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 **시나리오 1** 「미국 성장세 둔화폭 확대」 되는 상황에서 우리경제는 대외수요 감소뿐 아니라 외환·금융경로를 통해서도 부정적 충격에 노출되어 **금년중 성장률은 -0.1%p, 내년 성장률은 -0.3%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물가의 경우 파급시차 등을 고려할 때 올해에는 영향이 제한적 $-0.0\%p$ 이며 **내년중에 -0.2%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나리오 2** 「반도체 경기 개선폭 확대」 되는 경우, 소비 및 설비투자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성장률은 금년과 내년 각각 +0.1%p, +0.2%p** 상승하고 **물가상승률은 올해 $+0.0\%p$ 에는 큰 변화 없이 내년중 +0.1%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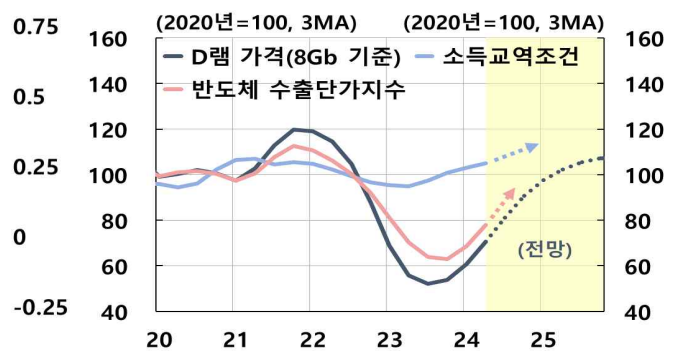
< 미국 경기침체 가능성¹⁾ >



주: 1) Sahm 법칙은 최근 3개월 실업률 평균이 이전 12개월중 최저 실업률보다 0.5%p 이상 높으면 경기침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

자료: NY Fed, FRED

< 반도체 가격 및 교역조건 >



자료: 경제통계국, 주요 IB 및 조사국 시산

GDP 성장률

(전년대비, %)	2023	2024 ^{e)}	2025 ^{e)}
기본 전망	1.4	2.4	2.1
시나리오 1		-0.1	-0.3
시나리오 2		+0.1	+0.2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대비, %)	2023	2024 ^{e)}	2025 ^{e)}
기본 전망	3.6	2.5	2.1
시나리오 1		-0.0	-0.2
시나리오 2		+0.0	+0.1

자료: 조사국, 경제모형실

경제전망 요약표(2024.8월)

	2023		2024		2025 ^{e)}		
	연간	상반	하반 ^{e)}	연간 ^{e)5)}	상반	하반	연간 ⁵⁾
<전망의 주요 전제>							
세계경제 성장률(%) ¹⁾	3.2	3.2	3.1	3.1 [-]	3.1	3.2	3.2 [+0.1]
• 미국	2.5	3.0	1.9	2.4 [-0.1]	1.6	1.9	1.8 [-]
• 유로지역	0.4	0.4	1.1	0.8 [-]	1.5	1.6	1.5 [-]
• 중국	5.2	5.0	4.7	4.8 [+0.1]	4.4	4.5	4.4 [-]
• 일본	1.7	-0.9	1.5	0.4 [-0.4]	1.8	0.4	1.1 [+0.2]
세계교역 성장률(%) ¹⁾	0.9	1.7	3.9	2.8 [-0.3]	4.4	2.6	3.4 [-0.1]
브렌트유가(달러/배럴) ²⁾	82	83	84	83 [-2]	81	80	81 [-]
<국내경제 전망>							
GDP 성장률(%) ¹⁾	1.4	2.8	2.0	2.4 [-0.1]	1.8	2.4	2.1 [-]
• 민간소비	1.8	1.0	1.8	1.4 [-0.4]	2.2	2.3	2.2 [-0.1]
• 건설투자	1.5	0.8	-2.2	-0.8 [+1.2]	-3.4	1.8	-0.7 [+0.4]
• 설비투자	1.1	-2.3	2.6	0.2 [-3.3]	6.5	2.2	4.3 [+0.4]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7	1.7	2.0	1.9 [-0.5]	3.2	3.4	3.3 [-]
• 재화수출	2.9	8.4	5.6	6.9 [+1.8]	3.1	2.6	2.9 [-0.1]
• 재화수입	-0.3	-1.4	4.6	1.6 [-0.8]	5.2	2.1	3.6 [+0.5]
소비자물가 상승률(%) ¹⁾	3.6	2.8	2.2	2.5 [-0.1]	2.2	2.1	2.1 [-]
• 근원물가 ³⁾	3.4	2.4	2.1	2.2 [-]	2.1	2.0	2.0 [-]
경상수지(억달러)	355	377	353	730 [+130]	320	300	620 [+10]
• 상품수지	341	443	373	816 [+109]	437	364	801 [+5]
• 서비스수지	-257	-114	-119	-233 [+15]	-150	-161	-311 [+5]
• 본원·이전소득수지	271	49	99	148 [+7]	33	97	130 [-]
취업자수 증감(만명) ¹⁾	33	22	18	20 [-6]	17	14	16 [-2]
실업률(%)	2.7	3.1	2.7	2.9 [-]	3.1	2.7	2.9 [-]
고용률(% ⁴⁾	62.6	62.5	63.0	62.7 [-0.1]	62.6	63.1	62.9 [-0.1]

주: 1) 전년동기대비 기준 2) 근원물 기간 평균 기준 3) 식료품·에너지 제외 기준
 4) 15세 이상 기준 5) []내는 24.5월 전망 대비 변화

자료: 한국은행, 각국 통계청, Bloomberg